

랭전종식후 미제가 감행한 남조선괴뢰들의 군사장비현대화책동의 특징

장 경 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의 요구에 따라 괴뢰군병력이 증강되고 있으며 그 군사장비는 더욱 현대화되고있습니다.》(《김일성전집》 제37권 302페이지)

오늘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침략전쟁준비에 미쳐날뛰면서 그 한 고리로 남조선괴뢰들의 군사장비를 보다 현대화하기 위한 책동에 매여달리고있다.

랭전종식이후 미제가 감행한 남조선괴뢰들의 군사장비현대화를 위한 책동의 특징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독자적인 미싸일공격능력》을 갖추도록 한것이다.

랭전시기 미제는 남조선괴뢰들의 군사장비를 강화하는데서 중거리미싸일들로 장비하려고 책동하였다.

1970년대초부터 1990년대초까지 미제의 주요 군사전략들에 의하면 새로운 조선전쟁에서 미국은 주로 첨단무기들에 의거하여 해상과 공중에서 전략적지원을 주고 남조선괴뢰들은 육군을 위주로 하여 인적자원제공을 책임지게 되어있었다.

그것은 남조선괴뢰들을 미국의 군사적 《보호》밑에 깊숙이 끌어넣어 철저히 종속시키며 남조선강점 미군의 존재명분을 세우려는 저들의 대조선, 대아시아정책에도 부합되였다.

그러므로 미제는 남조선괴뢰들의 군사장비를 현대화하는데서 주로 상용무기들을 위주로 하고 일부 경우에 공격거리가 짧은 전술미싸일들을 넘겨주었다.

남조선괴뢰들에게 미싸일을 넘겨주는 경우 사거리가 짧은 《오네스트존》, 《나이크

헤쿨레스》나 개인휴대용《레드아이》, 《스팅거》, 《토우》 등을 넘겨주었다.

《유신》독재시기 남조선괴뢰들이 《자주 국방》론을 들고나오면서 독자적인 《미싸일개발》을 운운할 때도 미제는 남조선괴뢰들이 미싸일개발과 관련한 자료들을 사전에 저들에게 제출하게 하였으며 개발하는 경우에도 그 사거리를 180km이하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랭전종식이후 사정은 달라졌다.

그것은 랭전종식이후 조만간에 《붕괴》되리라고 타산했던 우리 공화국이 선군의 기치밑에 강위력한 총대로 《유일초대국》인 저들과 단독으로 맞서 당당히 싸워 련전련승해나가는 놀라운 현실이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해서는 미군뿐 아니라 남조선괴뢰들의 군사적공격능력도 더욱 높여야 한다고 타산하고 남조선괴뢰들의 《독자적인 미싸일공격능력》을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하였다.

미제는 종전과 같이 저들이 직접 괴뢰들에게 미싸일을 넘겨주는 방법이 아니라 자체로 미싸일의 사거리를 더 늘이도록 정책을 조종하였다.

특히 미제는 우리 공화국의 선군정치의 위력에 눌리워 《조미기본합의문》에 도장을 찍은 후에도 괴뢰들의 미싸일개발책동을 비호목인하면서 북남대결과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려고 책동하였다.

미제는 1995년부터 괴뢰들과 마주앉아 미싸일공격능력을 높이기 위한 《미싸일협약》이라는것을 벌려놓았고 1999년에는 비공식협의를 통하여 괴뢰들이 미싸일사거리를 300km로 늘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서 남조선괴뢰군은 1999년 4월 10일 조

선서해에서 신형미싸일 《현무》의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그후 미국은 2001년에 남조선피뢰들과 《미싸일협정》을 새롭게 체결하고 피뢰들의 미싸일사거리를 300km로, 유효탑재중량을 500kg으로 공식화하였다.

미제가 피뢰들의 미싸일사거리를 연장시키도록 허용하게 된것은 공화국북반부의 넓은 지역 특히는 지금까지 사거리밖에 있던 전략적지점들을 저들이 아니라 피뢰들이 직접 타격할수 있게 하자는데 있었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미국의 우익보수세력들은 호전적인 피뢰역적패당이 미싸일의 사거리를 1 000km로 늘어줄것을 청탁하자 피뢰들에 대한 모든 미싸일제한을 취소하여 우리에게 대한 《위협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추겨주었다.

여기에서 힘을 얻은 남조선피뢰들은 2012년 4월에 아직 미국상전들로부터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약 1 500km의 사거리를 가진 신형순항미싸일을 배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랑전종식이후 미제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피뢰들의 미싸일공격능력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피눈이 되어 날뛰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미제가 감행한 남조선피뢰들의 군사장비현대화를 위한 책동의 특징은 다음으로 미제가 남조선피뢰들로 하여금 핵 및 우주분야와 같은 선진군사기술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능력을 높이는데 리용할수 있도록 비호조장시키고있는것이다.

랑전시기 미제는 최첨단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핵분야나 우주분야의 군사기술에 대하여 피뢰들에게 넘겨주는것을 극력 제한하거나 외면하는 립장을 취하였다.

랑전시기 남조선피뢰들의 핵무기개발책동은 박정희《유신》독재시기부터 미국상전들의 눈치를 보아가며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랑전종식후 보다 강화된 미제의 대조선침략책동에 힘을 얻은 남조선피뢰들은 《이제는 우리도 핵능력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고 떠벌이면서 핵무기개발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떠들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남조선피뢰들은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라는것을 세우고 핵무기개발능력을 부단히 키워왔는데 여기에서 주목되는것은 지난 시기와 달리 미국이 이 모든 사실들을 철저히 비호하고 감싸주었다는것이다.

2004년에 남조선피뢰들이 비밀리에 진행한 핵물질실험사건과 관련하여 미국무성대변인은 남조선의 농축우라니움이 극소량이여서 핵무기제조는 생각할수 없으며 피뢰당국이 이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밝히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있다고 하면서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아닌보살하였다. 미국무장관 포웰, 국방장관 램스펠드 등도 런던아 나서서 《우라니움농축실험과 플루토니움추출실험은 학술실험목적에 불과한것이 명백하다.》, 《핵무기개발과 무관하다.》고 떠벌이면서 남조선피뢰들의 핵문제를 감싸주었다.

저들의 핵개발을 감싸주는 미국의 태도에서 힘을 얻은 남조선피뢰들은 2013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워싱턴에서 미국과 마주앉아 《원자력협정》개정을 위한 6차본 협상을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기본으로 된것은 남조선피뢰들이 이미 사용한 핵연료재처리문제와 우라니움농축문제였다. 이 회담에서 미국과 피뢰들은 의견상이를 좁히지 못한채 다만 2014년 3월로 완료되는 현재의 《원자력협정》을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를 보고 협상을 끝마쳤다.

내외의 여론과 압력때문에 비록 합법적으로 승인하지는 못하였지만 이것은 명백히 미국이 랑전종식이후 더욱 어벌이 크게 감행되는 남조선피뢰들의 핵무장화를 비

호하고 조장시키고있다는것을 보여준것이였다.

남조선피뢰들의 핵무장화가 두말할것도 없이 바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공격을 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한편 미제는 저들이 가지고있는 우주분야에서의 군사기술을 피뢰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2012년에 워싱턴에서 남조선피뢰들과 《남조선-미국통합국방협의체회의》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여기에서 미국과 피뢰들은 공동으로 우주작전연습을 진행하며 2013년부터 여러명의 피뢰군장교들이 미국이 운영하는 우주작전학교에 들어가 9주동안 우주작전기지 및 우주전략운용개념을 배우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피뢰들 스스로가 《남조선-미국통합국방협의체》를 통해 저들이 미국과 우리의 그 무슨 《핵위협》에 대처한 씨나리오를 공동개발하고있으며 남조선-미국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실지 검증할 계획이라고 떠들었다.

지어 남조선피뢰들은 저들이 우리에게 대한 《정밀타격작전》을 실행하는데서 미국의 위성정보가 가장 중요한 담보로 된다고 하면서 《미국 우주작전의 협력이 없으면 한국은 진정한 선제작전을 벌릴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떠벌이였다.

이러한 사실은 미제가 현재 남조선피뢰군이 보유하고있는 군사장비들을 미국의 위성정보체계와 련결시켜 그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이며 그것을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전쟁수행에 보다 효과적으로 써먹으려 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미제가 감행한 남조선피뢰들의 군사장비현대화를 위한 책동의 특징은 다음으로 미제가 남조선피뢰들의 군사장비를 현대화하는것을 통하여 더 많은 리윤을 추구

하려는 략탈적성격이 보다 강화된것이다.

랭전시기 미제가 감행한 남조선피뢰들의 군사장비현대화는 기본적으로 《무상원조》(1945~1960년대), 《군사판매차관》(1970~1980년대)의 형태를 띠고 감행되였다.

이런 형태는 다 정치군사적으로는 예측을, 경제적측면에서는 후불을 전제로 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랭전이 종식된 이후 남조선피뢰들에 대한 미제의 군사장비현대화책동은 기본형식이 《군사판매》로 바뀌면서 그 략탈적성격이 뚜렷이 표면화되였다.

랭전이 종식된 이후 미제는 남조선피뢰들의 군사장비를 현대화하는데서 지난 시기에 내들었던 《무상원조》나 《차관》의 형식을 집어던지고 그 략탈적본색을 완전히 드러냈다.

그것은 랭전이후 미제가 해마다 더 많은 군사비를 탕진하면서 점차 천문학적액수의 채무를 걸머지게 되였고 오늘날에 와서는 군비를 축감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경제형편이 악화된 사정과 관련되어있다.

이로부터 미제는 랭전종식이후 《군사판매》를 기본형식으로 하여 남조선피뢰들의 돈주머니를 더 많이 털어내는데 급급하게 되였다.

그것은 남조선피뢰들이 공군현대화를 제창하면서 미국과 거래한 F-15K 전투기 구입 하나만 보아도 충분히 알수 있다.

F-15K는 원래 미국의 보잉회사에서 제작되어 1972년에 처음 나온 후 한동안 인기가 있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비행기의 성능이 떨어지는데 따라 유지비가 늘어나고 부속품보장문제를 비롯한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어 미국자체 내에서도 《애물단지》라는 평가를 받고있었다.

2001년 남조선의 집권자가 미국에 갔을 때 부쉬2세가 직접 F-15K를 사들일것

을 강박한것을 비롯하여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동참모본부의장,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등 고위인물들이 차례로 나섰다.

지어 미주리주출신의 한 거물급 정치인은 2002년초에 《아시아타임스》신문과의 회견에서 남조선을 미국의 《주니어 파트너》(하급동료)라고 하면서 만일 남조선이 《F-15K》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 불행한 일이 발생할것이라는 협박까지 하였다.

미국이 이처럼 남조선피뢰들로 하여금 《F-15K》를 사가도록 분주당을 피우게 된 것은 바로 보잉회사의 심각한 재정위기와 관련되어있었다.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결국 피뢰들은 45억US\$를 들여 《F-15K》전투기 40대를 미국으로부터 사들여 2009년까지 피뢰공군에 작전배비하게 되었다.

이것은 1971~1975년에 미국이 남조선에 수출한 군수품과 군사원조의 총액인 15억US\$나 1976~1980년에 미국이 피뢰들과 체결한 무기수출협정의 총액인 42억4300만US\$보다 더 많은 액수이다.

그리고 1981년에 레간행정부가 남조선에 수출한 《F-16》전투기 36대의 총 가격인 9억US\$에 비해볼 때도 5배나 되는 액수이다.

또한 남조선피뢰군의 군사장비현대화를 통하여 더 많은 리운을 얻으려는 미국의 음흉한 속심은 남조선피뢰들에게 미국으로부터의 군수품구입지위를 올려주는데서도 나타났다.

2007년 8월 14일 미국회는 머지않아 상하량원에서 《미국-남조선군사협력개선법안》을 표결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미국은 대외군수품판매계획에서 3부류에 속해있던 피뢰들의 지위를 2부류

로 올려주기로 하였다.

비록 한등급의 차이였지만 미국으로부터 받는 대우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레하면 1부류와 2부류에 속한 나라들이 미국으로부터 1억US\$이상의 무장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심사기일이 1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시기 피뢰들의 경우에는 구입액이 5 000만US\$를 넘기만 하면 30일간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하였다. 이러한 대우는 피뢰들로 하여금 미국으로부터 현대적인 군사장비들을 구입하는데 지장을 받게 하였을뿐아니라 더 많은 리운을 추구하는 미군수독점체들의 불만을 사게 하였다.

《미국-남조선군사협력개선법안》에서는 남조선피뢰들이 2 500만US\$이상의 주요 군사장비, 1억US\$이상의 일반군용부속품과 봉사, 3억US\$이상의 건설 및 설계봉사를 받을 때에만 미국회의 심사비준을 거치며 그 기간도 15일로 줄이게 하였다.

결국 이 법안이 나옴으로써 남조선피뢰들이 미국으로부터 군사장비를 더 많이, 더 빨리 사갈수 있게 된것은 물론 미국군수독점체벌들의 돈주머니가 더 많이, 더 빨리 불어날수 있게 되었던것이다.

이처럼 미제는 령전종식이후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할뿐만아니라 더 많은 리운을 얻기 위하여 남조선피뢰들의 군사장비현대화책동을 광란적으로 벌리었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를 핵전쟁의 위험이 시시각각 커가고있다.

현실은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때만이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의 무모한 군사적대결책동을 짓부시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